

교회 성장과 성경 공부

옥 한 흠

(서울·사랑의 교회 담임)

차례

- | | |
|--------------------|--------------|
| 1. 제자의 의미와 세 가지 원리 | 3. 성경 공부의 시작 |
| 2. 제자 훈련과 소그룹 운동 | 4. 성경 공부의 실제 |
| | 5. 맷는말 |

우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논리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을 하면 모두들 그 교회의 방법을 모방하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백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 방법은 오백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랑의 교회의 방법을 배우려 하지 말

※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임.

고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과 함께 중요한 목회 철학으로 선택한 것은 평신도 훈련입니다. 이는 저의 신학적인 신념이고 확신을 갖는 문제인데 개척과 함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지금 3년 반밖에 되지 않아 어떤 말을 하길 곤란하지만 한국 교회가 평신도 훈련에 눈을 떠야만 되겠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한 W.C.C.는 평신도 운동의 문제를 자각했고 헨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학」이 그 입장을 대변한다 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전략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성서적인 전략을 발견치 못하고 단순히 평신도의 목회 참여면에 대한 강조와 사회 생활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이론만 강조했지 평신도의 본질 문제에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Y.M.C.A.운동이나 Y.W.C.A.운동에 그 잔재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W.C.C. 계열의 평신도 운동을 그 자극을 받은 교회들이 30~40년이 지난 다음 '교회는 성장치 못했다'고 보고 그 운동의 실패를 자인하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은 교회 밖 선교 운동(Outside Church Movement)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 평신도 운동의 불길을 일으켰는데 C.C.C., Navigator, I.V.F., Joy 등의 복음 단체들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과는 달리 크게 한국에서 성공한 것은 그 전략이 성서적이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disciples training)의 전략이 주효했던 것이지요. 한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많은 교회의 젊은이들과 부흥 운동에 Disciple-Ship 원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상이 혹 좋지 않은 것이 있으나(특히 이

들의 교회관에서) 그 원리는 매우 정확합니다. 이들의 제자 훈련의 원리는 이것을 개인 개인에게 적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평신도 운동으로서 세계적으로 파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원리는 평신도의 목회 참여가 아니라 개인의 심령 변화입니다. 특히 인간 개조의 전략이 약한 기성 교회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해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인 인간 개조는 설교나 심방으로는 약하고 제자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1. 제자의 의미와 세 가지 원리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를 제외하고는 이 제자에 대하여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의미를 다같이 사용합니다. ‘제자’라는 용어를 전 크리스챤에게 파급시켜 적용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믿는 자’라고 표현한 이후에는 모두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안디옥에서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의 크리스챤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 말의 예수쟁이라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의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전적 위탁으로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눅 14:25)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신뢰하는 의탁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완전히 주님에게 위탁하는 작업을 해

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원리입니다. 제자의 자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챤을 말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그들의 사명이고, 생활이 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제자의 원리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요 13:34).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밭을 쟁여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①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도록 훈련한다.
- ②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③ 항상 종으로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런 세 가지 원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설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설교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설교는 삶의 원리는 제시해 줄 수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설교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65년도에 중요 도시의 큰 교회 대학생 1,000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바로는 70% 정도가 불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의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개념이 주효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의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 크리스챤의 80% 정도는 교회 밖 선교 단체의 영향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이들의 제자 훈련 원리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2. 제자 훈련과 소그룹 운동

이 제자 훈련이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새 생명’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출생해야 하고, 재생산해야 하는데 실제 목회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데 이 세 단계를 거치도록 정확하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까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일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 출생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미국 남침례교 교단 총회장의 보고 중 자기 교단의 60% 내지 70%가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자기 비판적인 글을 읽었읍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은 전부 치료해 주는 방법이 제자 훈련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양육(follow up)이라 부르는데 이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고, 성장시키고 재생산을 하게 하는 필수적인 도구가 성경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양식인 성경 공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그룹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명은 조직체가 아닌 유기적인 분위기에서 출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유기적인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몸을 통해 생명이 계속 출생하고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과연 유기적인 체제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가 조직과 법을 통한 조직체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능률적인 면은 있겠으나 영적 생명을 출생시키는 데는 무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실 체제를

중심한 강의식이 아니라 포근한 안방의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로 소그룹 혹은 세포 그룹(Cell Group Study) 형태의 성경 공부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7, 8명이 모이는 소그룹은 유기적인 분위기로 형성되며 이 분위기가 밀착되면 순전히 사랑으로 연결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영적으로 태어나고 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지만 그 지식은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해요. 가령 전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나, 예수님에 대해 성경으로 정확하게 요약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형편에서 성경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부, 청년회를 빼고 100여 개의 성경 공부 그룹이 있는데 이러한 소그룹은 유기적인 분위기를 통해 영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세계 문답을 통해 이러한 일은 실증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소그룹 운동인 다락방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거듭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다락방을 통하여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배우게 되고 실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엡 6:17)은 자기가 먹은 말씀으로써 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깨달은 말씀이라야 합니다.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할 때 비로소 그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읍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또 하나 좋은 점은 가르치는 자가 본보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인들이 장기간 목회하시는 목회자를 닮듯이 작은 그룹으로 모일 때 그 리더는 그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한 주에 한 두 번씩 성경을 놓고 서로가 둘러앉아서 깊이 말씀을 나누면 그 속에서 지도하는 사람의 사상과 신앙과 생활과 인격 전부가 하나하나 노출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리더의 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영적인 자녀를 만들게 됩니다. 소그룹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이러한 세 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훈련의 원칙은 실제 목회에 적용될 때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3. 성경 공부의 시작

먼저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기 신념이 필요합니다. 교역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봄된 교회를 세우도록 뒤에서 산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엡 4:11) 이것을 꼭 시행해야겠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국내에는 로렌스 리차드의 「기독교 교육 원리와 실제」(문창수 역)과 무어의 「Follow up of the New Testament」가 번역되어 있고 네비게이토의 「성경 소그룹 지도 이론」이 나와 있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또 평신도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위해 헨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학」 등이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간파하고 난 이후에 라야 방법론이나 커리큘럼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성 교회의 경우 이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성도 교회 대학부를 맡았는데 대학생이 1명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낮 예배 후인 12시 반으로 시간을 조정하고 예배를 마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했읍니다. 제자를 만들자, 한 사람이라도 똑똑한 제자를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이었

지요, 저는 이때 제가 만드는 이 원칙이 목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5년 후에는 재적이 3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 75%가 대학생 때 예수 믿고 들어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울 뿐 아니라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성 교회의 신자와 마찰을 가겨 오기도 하는데 지도자는 특히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성 교회에서 이 원리를 적용할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부 반응을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먼저 당회원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수가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훈련을 하신 것같이 장로님들이 먼저 훈련받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훈련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연세, 건강), 당회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룹과 권사님이나 여집사 그룹 7, 8명을 선택해서 이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성공적인 교회에 견학도 보내고 하세요.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반 년을 같이하면 유능한 장로님들은 집사 그룹을 맡을 수 있지요. 장로님은 그 그룹을 지도하면서 목사님에게서 계속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을 계속하면 교회의 체질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뼈를 깎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한 주에 여섯 그룹을 하고 있어요. 특히 내가 지도자라는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낮아져서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게 될 때, 똑같은 자리에서 대화할 때 이야기는 되는 것입니다.

4. 성경 공부의 실제

이제 구체적인 점을 살펴봅시다. 목사님이 장로님 다섯 분과 같이 모였습니다. 교재는 크게 관계가 없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문제를 내어 놓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런 것을 공부하자고 내어 놓는가?’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강의나 설교식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게 한 후 그 구절에 관해서 아는 대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대부분 잘 못해요. 그러나 이때 ‘잘못했다’하면 안 되겠지요. 보통의 경우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다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도록 하면, 요점을 말하도록 하면 질문을 받은 이뿐 아니라 모두가 성경을 다시 봐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대면의 시간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말씀과 만나게 하는 작전입니다. 자신이 설명을 잘 못했을 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려듭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대충 의미를 이야기하고 난 후 목사님이 ‘요점은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문제를 공부할 경우 앞의 방법대로 본문의 내용을 전부 정리를 했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전제로 말한 후 목사 자신도 부끄러운 게 많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장로님들도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적용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생활의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두 세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두 세 달을 인내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의 경우 주일 아침 9시부터 예배 전까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1년 반, 2년이 지나자 그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 목사님은 매주 세 번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남자들을 위해 밤에 한 번, 여자들을 위해서 낮에 한 번, 지도자를 위해서 한 번은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지요. 사생활이 침해를 당합니다. 어떤 때는 책 읽을 시간도 없을 만큼 쫓깁니다. 참고 견디면 나

중에 목회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고 성경의 참 맛을 알게 되면 설교를 그렇게 잘 들을 수 없어요. 또 스스로 전도를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산인데 저희 교회의 경우 지난 해에 처음 전도받아 들어온 이가 600명이 됩니다. 다 관리를 못 해요. 총동원 주일 없이도 이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면 제자가 되고 전도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도 가슴에 불이 타면 스스로 전도를 합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이제 3년 반쯤 되었는데 제적이 1000명 되는데 어른만 700명 넘게 모입니다. 지금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1년 코스인데 지원하라고 광고를 했더니 너무 많이 지원해서 3그룹으로 나누고 부교역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6개월을 맡아서 세 그룹을 하고 그 사람이 올라오면 고급반으로 제가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신·구약 성경을 1년에 한 번 보고, 신약은 두 번 보아야 하며 적어도 성경 구절 60구절은 외워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초를 닦아줘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구역 예배가 따로 없고 이런 순전히 성경 공부 스타일입니다. 말씀이 우선 충만하고 서로 교제하고 친양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분위기입니다(골 3:16, 17). 오전 10시에 모여서 오후 3시까지 흩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기적인 깊은 관계에서 서로가 깊이 밀착되어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락방을 맡은 70여 명의 순장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작은 목사로서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목사는 신학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장단의 설교를 제외하고도 평신도들을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활용하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럴 때 다락방의 순장들이 10명을 놓고도 목회를 해보니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음을 보고 담임 목회자의 고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고 얼마나 위로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5. 맷는말

성경 공부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출생과 변화를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을 합니다. 신학 특강이나 구약의 계시 과정이나 성경 개론 등은 그 다음의 순서입니다. 예수에 대해 실감있게 체험도 못 한 사람이 성경 상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 믿은 신자라도 별 수 없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제자 훈련은 영적으로 바탕을 완전히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다른 방법이 동원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書評